



그림 1. RPA clasp

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지대치를 splint하여도 지대치쪽을 보강하여서 binding clasp를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소의치 디자인에 있어서 몇가지 사항중에서 중요한 두가지를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하겠다.

4. 증례 4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case
교합면에서 접근하는 clasp는 치

아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치은에서 접근하는 clasp는 치조골이나 연조직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clasp의 선택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와 잔존치조제의 형태와 질을 고려해서 support를 어느쪽에서 많이 얻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선택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clasp의 선택은 최선의 절충을 보아야 하며 더 문제점이 적은 쪽을 그리고 교합압을 어느쪽으로 분산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게 좋겠다.

Q : 임시보철물이 임프란트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부교수 조성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A 첫째, 개체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임프란트 식립 후 약2년 정도가 지나야 임프란트 주위골의 밀도가 골자체의 밀도보다 높아지는 소위 말하는 remodelling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좀 덜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골드시린더 대신에 레진시린더를 사용하여(이것은 가격이 싸니

다) 레진시린더를 연결하여 레진 임시보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조된 금속구조물에 의하여 연결된 보철물보다 임프란트주위골에 힘이 덜 가하게 되어 임프란트의 실패를 적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프란트 한 개가 받는 힘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합치가 의치인 경우에는 보철물장착 이후의 임프란트의 실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임프란트주위골의 밀도가 여물어지기전까지는 임프란트보철물에 힘을 적게 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1. 임프란트수를 늘인다던가
2. 가급적 치밀골에 임프란트를 심는다
3. 치유기(healing time)을 가급적 길게 준다
4. remodelling이 이루어지는 시기 전까지는 레진에 의한 임시보철물을 장착케하여 교합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이 높은 성공율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둘째는 임시보철물은 비용이 매우 싸입니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장기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년이상도.

셋째, 이는 영구보철물의 길잡이가 됩니다. 심미적문제를 알아내게 하고, 또 환자의 불만을 알아 내어 영구보철물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골의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임시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